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4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이승모 · 최상훈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47%	25번	(독서 : 예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사례 분석
오답률 4위	50%	36번	(독서 : 과학) - 지문에 제시된 상황의 이유 추론
오답률 3위	56%	37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오답률 2위	62%	41번	(독서 : 경제) - 지문에 제시된 상황의 전제 추론
오답률 1위	65%	42번	(독서 : 경제) -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문학] 고전시가 : 정철, ‘사미인곡’ / 현대소설 : 박완서, ‘해산바가지’

[문법] 11번, 14번, 15번

[독서] 기술 지문 : 소비자 선택 이론을 통한 합리적 소비의 이해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47%) 예측] : 독서-예술 25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사례 분석]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20세기 중엽에 세페르는 주위의 소리, 온도, 빛 등에 반응하여 동작하는 「CYSP 1」을 만들었다. 「CYSP 1」은 롤러가 달린 원통형 받침대, 직사각형의 철제 골격들, 다채로운 색상의 금속판들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물로, 파란빛을 비추면 금속판들이 회전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빨간빛을 비추면 동작을 멈추는 식이었다. 이는 마치 감각 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 두뇌가 그에 적합한 동작을 하도록 근육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생물과 같았다. 생물의 이러한 자기 제어 원리를 기계 장치에 적용하는 기술을 사이버네틱스라 하는데, 「CYSP 1」은 이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켰다는 의미에서 사이버네틱 아트로 불린다. 비록 당대의 기술 수준이 낮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수동적 동작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인공 두뇌를 장착한 조형물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여겨졌다. 한편 세페르는 「CYSP 1」과 인간 무용수들이 함께 공연하는 합동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Killer-Point]

- ① 「CYSP 1」은 대상의 움직임이라는 환영을 창출하는 데 그친 예술품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CYSP 1」은 예술가가 표현하려는 개념의 표상을 동시적으로 현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CYSP 1」은 외부의 자극과 무관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④ 「CYSP 1」에 파란빛을 비추면 벽면의 스크린에 다양한 문양이 만들어짐으로써 시간에 따른 물상의 움직임이 3차원 공간과 2차원 평면에 한꺼번에 구현될 수 있겠군.
- ⑤ 「CYSP 1」을 일정한 공간에 전시한다면 이를 보는 관객은 과거의 합동 퍼포먼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조형물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군.

[정답 : ④]

지문에 제시된 예술의 종류, 즉 미래주의 / 키네틱 아트 / 미니멀리즘 중 무엇에 <보기>의 '사이버네틱 아트'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선지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지문에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만 따질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문에 있는 표현으로 선지를 구성하였음에도 그 선지의 해석에 주관을 끼워 넣지 않는 것이다.

<보기>의 「CYSP 1은」 파란빛이라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동작을 하므로, 파란빛을 비추면 금속판들이 회전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다. 이는 3문단에 설명된 키네틱 아트 「빛-공간 변조기」와 유사하다.

「빛-공간 변조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금속판들의 회전으로 인해 다양한 빛과 그림자의 문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3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물과 2차원 공간에 구현된 문양은 모두 시간에 따른 물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란빛을 비추면 시간에 따른 물상의 움직임이 3차원 공간과 2차원 평면에 한꺼번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기출]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여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

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대의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정답 : ①]

**[오답률 4위(50%) 예측] : 독서-과학 36번 문항**

**[지문에 제시된 상황의 이유 추론]**

[Killer-Point]

**36. ㉞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부와 주위 공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피부 온도와 주위 공기의 온도가 동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피부 온도와 주위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주위 공기의 온도가 피부 온도보다 높을 때에만 열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⑤ 피부 온도가 주위 공기의 온도보다 높을 때에만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답 : ②]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발문을 보고 ㉞의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무작정 선지로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선지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다.

대류 현상은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는, 공기층의 순환 현상을 가리킨

다. 따라서 대류 현상이 없는 환경은 공기의 순환, 즉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된다. 공기가 멈춰 있다면, 피부에서 발산된 열이 공기를 데워도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즉 피부 주위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피부 온도와 주위 공기의 온도가 동일해지면서 서로 열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어 전도에 의한 열 발산이 지속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 -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B**

일반적으로 어른은 추위를 느끼면 몸을 떠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한다. 세포의 구성 물질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음식을 통해 얻은 포도당을 아데노신삼인산(ATP)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둔다.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 근육을 떠는 과정을 통해 ATP가 분해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는 성인만큼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을 유지할 정도로 근육을 떨 수 없어, 등뼈나 신장 주변에 분포한 갈색 지방 조직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 갈색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갈색 지방 세포는 지방산이 포함된 기름방울과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기질, 내막, 외막, 내막과 외막 사이의 막간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역시 그 구조는 같다. 하지만 열 발생 과정에서 내막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 단백질이 작용하여 신생아가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의 체온이 내려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면 교감 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갈색 지방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β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갈색 지방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거쳐 기질로 운반된다. 이후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조효소에 의해 내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H<sup>+</sup>)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런데 수소 이온이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면, 막간 공간과 기질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농도 차이로 인해 양성자 이동력이라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되고, 이 힘에 의해 수소 이온은 농도가 낮은 기질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내막은 수소 이온과 같은 양성자에 대해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막간 공간으로 이동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내막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통로를 거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수소 이온이,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만 존재하는 '써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점이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 이온이 기질로 되돌아갈 때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한다. 이와 달리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써모제닌은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 기질의 수분 등과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0.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이 글을 읽어 보니, 일반 세포의 경우 양성자 이동력을 ( A )에 사용하고,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 B )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 | A        | B      |
|----------|--------|
| ① ATP 합성 | 열 생성   |
| ② ATP 분해 | 열 생성   |
| ③ ATP 합성 | ATP 분해 |
| ④ 열 생성   | ATP 합성 |
| ⑤ 열 생성   | ATP 분해 |

**[정답 : ①]**

[오답률 3위(약 56%) 예측] : 독서-과학 37번 문항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저체온증과 고체온증은 모두 체온 조절 기제의 이상이나 고온이나 저온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은 심부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2°C가량 낮은 상태, 고체온증은 심부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2°C가량 높은 상태이다. 한편 열증은 체온 조절 기제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감염 등에 의해 시상 하부에 설정된 기준 온도 자체가 높아지는 바람에 심부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단, 정상 체온은 사람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며 노인의 경우에는 36°C 정도이다.)

[Killer-Point]

- ① 체온 조절 기제에 이상이 없다면 심부 온도가 37°C인 노인의 입모근과 피부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는 없겠군.
- ② 심부 온도가 35°C인 사람이 노인인 경우보다 청년인 경우가 저체온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③ 상대 습도가 매우 높고 온도가 40°C인 환경에서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열 발생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고체온증에 걸릴 수 있겠군.
- ④ 체온 조절 기제 중 에피네프린과 티록신의 분비에만 이상이 있는 사람은 고체온증보다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체온 조절 기제에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 추운 곳에 오래 있다가 저체온증에 걸렸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심부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겠군.

[정답 : ①]

노인의 경우는 정상 체온이 36°C 정도라고 했으므로, 심부 온도가 37°C이면 심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체온 조절 기제가 작동할 것이다.  
그러면 입모근이 이완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될 것이다. 입모근 및 피부 혈관의 수축은 체외로 발산되는 열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모근이 이완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야 체외로 발산되는 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피부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언제나 예외 상황이 있는지는 디테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체온 조절 기제에 이상이 없어도 열증에 걸린 노인이라면 시상 하부에 설정된 기준 온도 자체가 높아진다. 만약 설정된 기준 온도가 38°C라면 심부 온도가 37°C인 노인도 시상 하부에서 체온을 올리는 기제를 활성화할 것이므로, 입모근과 피부 혈관이 수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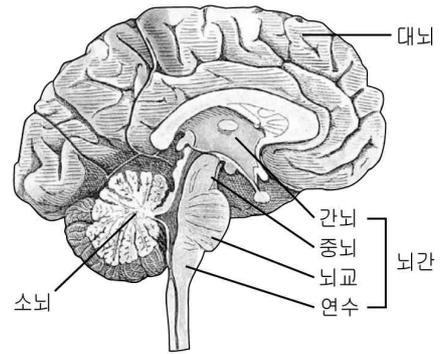
[유사한 사례] - 2010학년도 7월 학력평가

벨기에 RTBF 방송은 1983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론 하우벤이 침대에 누워 있는 23년 동안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첨단 장비로 론 하우벤의 두뇌를 검사한 결과,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던 뇌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간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다. 대뇌는 전체 뇌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사고나 추론과 같은 복잡한 인지 능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뇌는 대뇌 아래, 뇌간 뒤쪽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고, 시작된 운동의 연속적인 활동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뇌간은 간뇌, 중뇌, 뇌

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을 담당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뇌는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문제로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식물인간의 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외상이 가장 많다. 대뇌의 표층부를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으면 운동 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과 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로, 운동, 감각,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으며 의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밖에 견디지 못한다.



반면,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뇌사나 식물인간은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지만 뇌사나 뇌 전체나,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이 정지되어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상태에 놓인 환자를 인공호흡기나 약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도록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개 폐와 심장의 기능도 나빠져 그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편, 어떤 상태를 뇌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입장이 있다. 그 하나가 기능사와 기질사에 대한 것이다. 기능사란 뇌 순환은 유지되고 뇌 세포도 살아 있지만 뇌의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를 말하고, 기질사는 뇌 순환이 정지되고 뇌세포도 죽기 시작했거나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뇌 전체의 기능 정지를 뇌사(전뇌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뇌간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소실을 뇌사(뇌간사)로 보는 입장도 있다.

**33. 밑글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술을 마시면 맨 먼저 대뇌피질이 마비되면서 사고와 판단이 느슨해진다. 그러면서 평소 대뇌피질에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동물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변연계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그 결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 술의 양이 늘어나 알코올의 영향이 더욱 미치게 되면 몸을 비틀거리거나 일어서려고 해도 금방 쓰러지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호흡 장애와 심장 박동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 ① 알코올은 소뇌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알코올은 대뇌변연계 기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③ 음주로 인한 대뇌피질의 마비는 대뇌 일부의 기질사로 볼 수 있다.
- ④ 과도한 음주는 뇌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⑤ 음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부분은 뇌의 다른 영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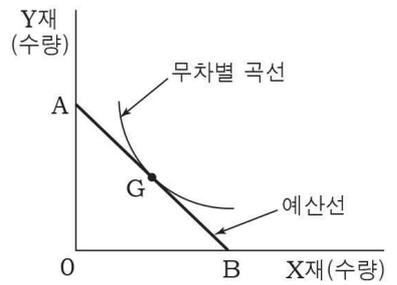
[정답 : ④]

[오답률 2위(약 62%) 예측] : 독서-경제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b>[지문에 제시된 상황의 전제 추론]</b>	
<b>[Killer-Point]</b>	<p><b>41. ㉠이 타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p> <p>①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의 크기에 비례한다.                  ②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에 비례한다.                  ③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에 반비례한다.                  ④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에 비례한다.                  ⑤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에 반비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②]</b></p>
	<p>41번 문제도 3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이다. 선지를 판단하러 들어가기 전에 ㉠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지로 들어갔을 때 ㉠의 상황과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에서 얘기하는 것은 D의 묶음을 선택하면 B의 묶음을 선택할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D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과 B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lt;그림&gt;을 통해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 차이점이 만족도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차별곡선의 정의상, B의 묶음은 무차별곡선 I2에 있는 어느 점의 묶음과도 만족도가 동일하다. D에서 X축에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무차별곡선 I2 위의 어느 한 점과 만날 것이다. 이 점을 K라고 불러 보자. K의 묶음은 B의 묶음과 만족도가 동일하므로, K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은 D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다. 이것이 ㉠의 진술 내용이다.</p> <p>그런데 K와 D의 차이점은 X의 수량밖에 없다. D에서 X축에 수평으로 그었다는 것은 Y의 수량은 같다는 것이므로. 두 묶음을 비교할 때, 두 상품 중 하나는 같고 하나는 많을 때 한 상품이라도 많은 묶음을 선택한 것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결국 ㉠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p>

<b>[유사한 사례] -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A/B</b>	
<p>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p> <p>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p> <p>예를 들어 &lt;그림&gt;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p>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1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비자는 X재보다는 Y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선분 AB는 소득보조 또는 가격보조가 시행되기 전 최초 예산선이다.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정답 : ③]

CD는 소득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고, AE는 가격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다. 3문단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소득만 증가하는 소득보조의 경우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률 1위(약 65%) 예측] : 독서-경제 4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42. 밑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상품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격 효과라고 한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상품뿐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증가하므로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위와 반대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 대신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다른 상품 대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도 대체 효과이다.

(단, 어떤 상품의 가격 변동에 의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발생할 때 그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에는 가격 변동이 없고, 정상재와 열등재의 가격 변동은 모두 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또한 언제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 ① 어떤 사람에게 정상재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겠군.
- ② 어떤 사람에게 정상재인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늘리겠군.
- ③ 어떤 사람에게 열등재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겠군.
- ④ 어떤 사람에게 열등재인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겠군.
- ⑤ 일반적으로 정상재의 가격 변동은 열등재의 가격 변동보다 소비자의 소비량을 더 크게 변화시키겠군.

[Killer-Point]

[정답 : ④]

지문에서 제시한 정상재와 열등재의 개념에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의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정상재와 열등재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한다.

- 1.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감소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감소하는) 상품이다.
- 2.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증가하는) 상품이다.

<보기>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보기>에 있는 소득효과, 대체효과 개념과 묶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격 ↑ (=소득 ↓)	정상재	소득효과	소비량 ↓
		대체효과	소비량 ↓
	열등재	소득효과	소비량 ↑
		대체효과	소비량 ↓
가격 ↓ (=소득 ↑)	정상재	소득효과	소비량 ↑
		대체효과	소비량 ↑
	열등재	소득효과	소비량 ↓
		대체효과	소비량 ↑

선지에서 열등재인 상품의 가격이 내렸다고 했으므로,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소비를 줄이려 들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

면 다른 상품 대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대체 효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열등재의 가격 변동도 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상품의 소비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대체 효과는 언제나 소득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소비를 줄이게 하는 효과(소득 효과)보다 소비를 늘리게 하는 효과(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소비를 늘릴 것이다.

사실 정답 선지를 골라내는 것도 어렵지만 ⑤번 선지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상재의 가격 변동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열등재의 가격 변동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상재의 가격 변동이 소비량을 더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해설]**

## 11.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중세 국어인 (가)를 먼저 살펴보자. (가)의 두 번째 예문인 ‘호오사 안자 잇더시니’에서 서술어를 분석하면 ‘앗- + -아 잇- + -더- + -시- + -니’로 ‘아 잇-’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또한, 세 번째 예문인 ‘精숨애 안젯더시니’에서 서술어를 분석하면 ‘앗- + -젯- + -더- + -시- + 니’로 ‘젯’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현대어 풀이는 ‘앓아 있으시더니’로 중세 국어에서 ‘아 잇-’과 ‘젯-’은 모두 ‘아 잇-’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어. 즉 ‘젯-’이 ‘아 잇-’의 축약형인 거야. 이제 (나)를 보자. (나)의 첫 번째 예문인 ‘사라 잇다가’에서는 어간 ‘살-’ 뒤에 ‘아 잇-’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예문인 ‘어직 술을 만히 먹엇노라’에서는 ‘엇-’이 사용되고 있어. 그리고 전자는 현대어가 ‘살아 잇다가’로 ‘아 잇-’으로 해석되고 후자는 ‘마셨노라’로 ‘앗-’으로 해석 돼. 그런데 보기에서 근대 국어 ‘엇-’은 중세 국어 ‘젯-’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형태만 바뀌었다고 하고 있어. 자, 중세 국어 ‘젯-’은 (가)의 세 번째 예문에서 드러나며 현대어로 ‘어 잇-’이었어. 하지만 (나)의 세 번째 예문에서 ‘엇-’은 현대어로 ‘엇-’이야. 즉 ‘젯-’은 중세에서 근대로 올 때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바뀌었어! 의미도, 형태도 모두 바뀐 거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가)의 ‘네룩부터’는 ‘예로부터’라는 의미로 중세의 ‘부터’는 현대어의 ‘부터’임을 알 수 있어. 이때 ‘부터’는 체언 뒤에 붙은 다른 조사 ‘로’ 뒤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조사’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해. 그리고 ‘브/터’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러므로 ‘부터’는 하나의 형식 형태소가 맞아.

②를 살펴보자. (나)의 첫 번째 예문 ‘사라 잇다가’에서 ‘아 잇-’은 현대어로 ‘아 잇-’에 해당 해. 하지만 두 번째 예문 ‘어직 술을 만히 먹엇노라’에서 ‘엇-’은 현대어로 ‘엇-’에 해당해. 그러므로 둘의 의미는 달라.

③을 살펴보자. (다)에서 두 번째 예문인 ‘어제 지은 밥이 아직도 남았다’는 ‘어제 지은 밥이 아직도 남아 있다’와 같은 의미야. 이는 두 문장 모두 어제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밥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러므로 ‘-았/엇-’이 ‘-아/어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어. 이때, 보기에 ‘맥락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았/엇-’이 ‘-아/어 있다’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예문인 ‘나는 어제 저녁을 안 먹었다.’가 ‘\*나는 어제 저녁을 안 먹어 있다.’라고 표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리하면 ‘-았/엇-’은 문장의 맥락에 따라 ‘-아/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못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⑥를 살펴보자. (나)의 ‘먹엇노라’에서 ‘엇-’은 현대어 ‘엇-’으로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지며, (다)의 ‘먹었다/남았다’에서 보이는 ‘-았/엇-’으로 바뀌었어. 이때 (다)의 ‘-았/엇-’도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져. 그러므로 근대 국어의 과거를 의미하는 ‘엇-’은 형태가 ‘-았/엇-’으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과거를 의미함을 알 수 있어.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Tip. 시간 표현

1. 시제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 발화시 :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
- 사건시 :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1) 과거 시제 : 발화시보다 사건시의 시점이 앞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예) 우리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 우리들이 처음 만난 것은 눈발 속이었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였-’ : 현재와의 강한 단절을 의미	예) 예전에 두 사람은 사랑했었다. 그 해 겨울밤은 저알 포근하게 느껴졌었지.
	과거 회상 선어말 어미 ‘-더-’	예) 세미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관형사형 어미	‘-(으)ㄴ’ : 동사의 어간에 결합	예) 저 남자가 내가 만난 사람이야.
	‘-던’ :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결합	예) 영수가 아름답던 그녀를 기억한다.
시간 부사어	옛날, 어제, 작년 등	예) 너는 어제 수업을 들었다.

(2) 현재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 동사의 어간에 결합	예) 영수가 지금 밥을 먹는다. 민호가 학교에 간다.
	없음 :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냄	예) 영화는 참 아름답다. 영수는 학생이다.
관형사형 어미	‘-는’ : 동사의 어간에 결합	예)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으)ㄴ’ : 형용사 어간, 서술격 조사에 결합	예)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시간 부사어	지금, 현재, 오늘 등	예) 나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

(3) 미래 시제 : 발화시보다 사건시의 시점이 나중인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예)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 ‘-(으)리다’, ‘-(으)리라’, ‘-(으)리까’, ‘-(으)리니’ 등의 한정된 표현에서 사용	예) 내일이면 서울에 다다르리라.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동사 어간에만 결합	예) 나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
시간 부사어	내일, 장차, 모레 등	예) 나는 내일 수업을 들을 것이다.

## [선택지 해설]

## 13.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의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에서 '돈다'를 분석하면 '돌- + -ㄴ- + -다'이며, '이곳은 차가 늘 막힌다.'를 분석하면 '막- + -히- + -ㄴ- + -다'야. 두 예시 모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사용되었어. 하지만, 이 두 문장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보편적인 진리,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곳은 차가 늘 막힌다.'는 자주 반복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정리하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자주 반복되는 일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사용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자주 반복되는 일은 '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에 가신다.'를 예로 들 수 있어.

##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의 '눈꽃이 참 예쁘다'에서 서술어인 '예쁘다'는 형용사이며, 해당 문장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 반면, '눈꽃이 하늘에 날린다.'에서 서술어인 '날린다'는 동사이며, 분석하면 '날- + -리- + -ㄴ- + -다'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 정리하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붙어서 현재를 표현하는 동사와 다르게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현재를 표현하고 있어.

②를 살펴보자. ㉢의 '내가 살던 곳이 여기다'에서 '살던'을 분석하면 '살- + -던'이며 '살던'은 뒤에 오는 명사 '곳'을 꾸며주고 있어. 본래 서술어로 많이 쓰이는 용언 '살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이 붙었기 때문이야. 이때 시제는 내가 과거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 해.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 또한, '내가 살았던 곳이 여기다'처럼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 앞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붙어도 똑같이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던'은 '-았-'과 함께 쓰여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아.

③을 살펴보자. ㉣의 '내가 가면 철수는 슬프겠지'의 서술어 '슬프겠지'를 분석하면 '슬프- + -겠- + -지'야. 이때, '-겠-'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에 내가 떠나면 철수가 슬퍼할 것을 예측하기도 해. '내가 갔을 때 철수는 슬펐겠지.'의 서술어 '슬펐겠지'를 분석하면 '슬프- + -았- + -겠- + -지'야. 이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과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같이 사용되었어. 그랬더니 문장은 과거에 내가 떠났을 때 철수가 슬퍼했을 것이라는 과거 사실을 추측하고 있어.

⑤를 살펴보자. ㉤의 '작은 이파리가 나고 있다.'에서 '작은'을 분석하면 '작- + -(으)ㄴ'이야. 이때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야. 그리고 해당 문장은 이파리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현재 시제야. 정리하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경우 '현재 시제'를 표현해. 다음으로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되었다.'를 분석하면 '뽑- +-(으)ㄴ'이야. 이때 '뽑다'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그리고 해당 문장은 내가 과거에 투표권을 행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 정리하면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경우 '과거 시제'를 표현해. 즉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은)'은 동사와 결합할 때와 형용사와 결합할 때 서로 다른 시제를 나타내.

##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음운의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박],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날, 날, 낫, 낫, 낫, 낫, 날 → [날]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ㅍ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3.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 'ㅇ, ㄴ, ㄹ'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ㄹ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냥는다], 부엌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ㄹ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겉모양→건모양], 쫓는[쫘는→쫘는]
ㅂ	ㄴ, ㄹ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뽕], 꽃병 → [꽃뽕],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기’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기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교체

6.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ㄲ, ㅆ’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ㄷ, ㅂ, ㄷ,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ㄷ, ㅂ, ㄷ, ㄹ]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갑], 닭 → [닥],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ㄹ, ㅂ, ㄷ, ㄹ	자음 앞	[ㄴ, ㄷ, ㄹ, ㄷ, ㄹ, ㅂ, ㄷ, ㄹ]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할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ㄷ,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ㄷ → [ㄷ]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ㄷ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ㅃ → [ㄷ]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짹게 → [짹께]

ㅃ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ㅃ’은 주로 ‘ㄷ’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ㅃ’은 ‘ㅂ’이 남는다.

-----탈락

7.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앉던 → [안텐],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매향 → [마텃], 값 흥정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약

8.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버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ㅣ’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주의] ‘ㄴ’ 첨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의 경우에는 ‘ㄴ’의 형태가 발음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야구[발라구]의 경우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발음에는 ‘ㄴ’ 밖에 보이지 않는다. ‘ㄴ’ 첨가 후 유음화되는 현상은 꼭 기억하자.

[선택지 해설]

14. ④

삯도	삯도 → 삭도 → [삭도]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옯는	옯는 → 윳는 → 읍는 → [읍는]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잡일	잡일 → 잡닐 → [잠닐] ㄴ첨가 비음화

정답해설 답은 ④야. 먼저 ㉠의 ‘옯는’은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윳는]이 되고 그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읍는]이 돼. 마지막으로 앞 음절 종성이자 파열음 ‘ㅃ’이 뒤 음절 첫 음운인 ‘ㄴ’을 만나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서 [읍는]이 돼. 이때 비음화는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 ㄷ, ㅂ’가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 ㅁ’을 만나 ‘비음’이라는 조음 방법을 따라 각각 비음 ‘ㅇ, ㄴ, ㅁ’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야. 다음으로 ㉡의 ‘잡일’은 우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 [잡닐]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잠닐]이 돼. 결론적으로 ㉠과 ㉡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의 ‘삯도’는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삭도]가 되고 그 후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삭도]가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ㅅ, ㅈ, ㄱ, ㅊ, ㄷ, ㄱ’의 6개에서 ‘ㅅ, ㅈ, ㄱ, ㄷ, ㄱ’ 5개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 다음으로 ㉡의 ‘옯는’은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윳는]이 되고 그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읍는]이 돼. 마지막으로 앞 음절 종성이자 파열음 ‘ㅃ’이 뒤 음절 첫 음운인 ‘ㄴ’을 만나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서 [읍는]이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ㄴ, ㄹ, ㅍ, ㄴ, ㄴ, ㄴ’ 6개에서 ‘ㄴ, ㅁ, ㄴ, ㄴ, ㄴ’ 5개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 마지막으로 ㉢의 ‘잡일’은 우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 [잡닐]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잠닐]이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ㅈ, ㅈ, ㅂ, ㅈ, ㄹ’ 5개에서 ‘ㅈ, ㅈ, ㅁ, ㄴ, ㅈ, ㄹ’ 6개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어. 결국 세 경우 모두 음운의 개수가 늘었어.

②를 살펴보자. ㉠의 ‘삯도’는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삭도]가 되고 그 후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삭도]가 돼. 이때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겹받침의 음운들 중 음운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이야.

③을 살펴보자. ㉡의 ‘옯는’은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윳는]이 되고 그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읍는]이 돼. 마지막으로 앞 음절 종성이자 파열음 ‘ㅃ’이 뒤 음절 첫 음운인 ‘ㄴ’을 만나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서 [읍는]이 돼. 정리하면 ㉡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총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의 ‘잡일’은 우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 [잡닐]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잠닐]이 돼. 다음으로 ‘한여름’의 경우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 [한너름]이 돼. 두 경우 모두 ‘ㄴ첨가’라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시가 [16~20번 지문] [정철, '사미인곡']

"평생에 원하기를 입과 함께 살고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입을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게 되었는가."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55p), 사용 설명서(p46)

[작품 '한눈'에 보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전문 풀이' 참고"

**[작품 구조]**

**[서사]** 임과 이별 후의 그리움  
**[본사]**

<p><b>춘사</b></p> <p>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매화)</p>	⇒	<p><b>하사</b></p> <p>이별 후에 느끼는 외로움과 입을 향한 정성(옷)</p>	⇒	<p><b>추사</b></p> <p>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마음(청광)</p>	⇒	<p><b>동사</b></p> <p>외로운 자신의 처지와 입에 대한 염려(양춘)</p>
---	---	--	---	---	---	--

**[결사]** 죽어서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마음

**[EBS 사용설명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 시간의 흐름(본사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그려 내고 있음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도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광한전에 머물 때	하계에 내려온 이후							
임에 대한 사랑	⇒	봄(동풍)	⇒	여름(녹음)	⇒	가을(서리)	⇒	겨울(백설)

임과 이별한 후에도 입에 대한 그리움을 일관되게 노래함.

**[tip]** 가볍게 확인, '시간의 흐름'

(전승산이)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엮디어 묻잡나니 /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 2019학년도 수능,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위 인용한 부분을 보면 '필담으로 써서 뵈되', '승산이 다시 하되'처럼 일본인 전승산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처럼 연속적이고 순서대로인 행동들 역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시간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가가 분명히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공간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상에 원하요디 한디 네자 하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tip]** 슬프되, 원망을 표출하지 않다.

화자는 젊었을 적과 늙었을 때를 비교하며 님의 사랑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임을 원망을 하기보다는 '외오 두고 그리논고'처럼 그리워하는 화자의 '외로운 모습'만을 부각할 뿐이다.** 이로써 임을 향한 절대적이고 지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면(廣寒殿)\*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에 느려오니

**[tip]** 공간적 거리감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하계'에 내려온 상황이다. **임이 계신 광한전과 하계라는 상당한 거리감을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거리감은 본 작품 다른 부분 "산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흐시고"를 포함하여 「속미인곡」 등 정철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일쇠  
연지분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막음의 미친 시름 텃텃이 빠져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은 유흔한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헌 세월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염냥(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밧기 심근 미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긋득 낭담한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타\*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덕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 광한면: 달에 있다는 가상의 궁전.

\* 염냥: 더위와 추위.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함.

\* 벼마타: 배갯머리에. 머리말에.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한 <b>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b> 의 대표적인 가사이다. 작가인 정철은 1585년(선조 18년)에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계절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임을 그리워하는 <b>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b> 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사미인곡」은 작가 정철이 이 작품의 후편으로 지은 「속미인곡」과 더불어 뛰어난 가사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수능특강' <보기>	
「사미인곡」은 <b>작가와 화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연군 가사</b> 이다.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사미인곡」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워 말하고자 했다. 즉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작품 곳곳에서 <b>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기도</b> 한다. 이는 정철이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b>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b> 이다.	
<보기> point	(1)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차용한 대표적 연군 가사 (2) 충신으로서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임.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② 임금의 궁궐이 있는 북쪽과 관련된 '북극의 별'이 보인다는 부분에서, 작가는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신하로서 임금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마음을 그려 내고자 했군. ⇒ '북극의 별'은 화자에게 임을 떠오르게 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게 하는 대상이다. 작가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북쪽은 임금이 계신 한양을 의미하고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를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특징」(in 사용설명서)	
<b>포인트 1</b> 표현상의 특징	
「사미인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노래함.</li> <li>• 사물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함.</li> <li>• 자신의 분신을 내세워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부각함.</li> </ul>

**포인트 2** 남장 작가인 정철이 여성 화자를 내세운 이유

임과 이별한 상황 속에 있는 여성을 화자로 설정함.

남성 작가인 정철은 왜 여성 화자를 내세웠을까?



'광한면'에 있는 임과 이별한 후 하계에 내려온 지 3년이 되었다는 화자의 상황과 '연지분', '홍상(紅裳)' 등의 소재를 통해 화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조선 시대에, 임금과 신하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또 다른 대상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이었기 때문임.  
→ 작가 정철은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더 알아보기」(in 사용설명서)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비교

	「사미인곡」	「속미인곡」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견주어 지은 <b>충신연주지사</b>임.</li> <li>• 화자가 <b>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여성</b>임.</li> <li>• 화자는 <b>죽어서라도 자연물이 되어 임을 따르겠다</b>는 마음을 드러냄</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계절의 흐름</b>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b>독백체</b>임.</li> <li>• <b>한자 성어나 고사</b> 등이 사용됨.</li> <li>• <b>과정적인 표현</b>이 사용됨.</li> <li>•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임이 자신을 몰라봐도 임을 따르겠다는 <b>소극적 태도</b>를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인물(갑녀, 을녀)의 <b>대화체</b>로 시상이 전개됨.</li> <li>• 상대적으로 <b>우리말의 묘미</b>를 잘 살림.</li> <li>• <b>소박하고 진솔한 표현</b>이 사용됨.</li> <li>•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b>적극적인 태도</b>를 보임.</li> </ul>

**필수 고전 전문 읽기** "이 작품이라면, 이 정도는 봐야 한다."

< 원문 >	< 현대어 풀이 >
<p>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좇아 삼기시니 한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p>	<p>(조물주께서) 이 몸을 만드실 때, 입을 좇아서 만드시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임을 하늘이 (어찌) 모를 일 이겠는가?</p>
-----[한수모의고사 수록 부분]-----	
<p>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p>	<p>나는 젊어 있고 입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p>
<p>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p>	<p>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하여 견줄 데가 전혀 없다.</p>
<p>평생(平生)에 원하건대 함께 살자 하였더니</p>	<p>평생에 원하기를 (임과) 함께 살고자 하였더니,</p>
<p>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p>	<p>늙어서야 무슨 일로 (임을)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게 되 었는가.</p>
<p>옛그제 입을 뒀서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더니</p>	<p>옛그제까지는 입을 모시고 광한전(달나라 궁전. 여기서 는 임금이 있는 서울의 궁궐)에 오르곤 했는데,</p>
<p>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오니</p>	<p>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속세(정철의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오게 되니</p>
<p>올 적의 빛은 머리 형클어진 지 삼년(三年)이라</p>	<p>(임을) 떠나 올 때 빛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임과 헤어 지게 된지) 삼 년이구나.</p>
<p>연지분(鰾脂粉) 있지마는 놀 위하여 고이 하고</p>	<p>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 할까?</p>
<p>마음의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p>	<p>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p>
<p>짓나니 한숨이오 지나니 눈물이라</p>	<p>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구나.</p>
<p>인생(人生)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그지없다</p>	<p>인생은 끝이 있는데 근심은 끝도 없다.</p>
<p>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하는고야</p>	<p>(임과 이별하고 보내는) 무정한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 가는구나.</p>
<p>염량(炎涼)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 오니</p>	<p>위와 서늘함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다 다시 돌아오니,</p>
<p>듯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p>	<p>듣거나 보거나 하는 중에 복받칠 일도 많기도 많구나.</p>
<서사>	<서사>
<p>동풍이 건 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p>	<p>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p>
<p>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p>	<p>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p>
<p>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p>	<p>가득이나 (날이) 쌀쌀한데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무슨</p>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말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본사1>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본사2>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일인가?

황혼(저녁 무렵)에 달이 쫓아와 내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도 하고 반기는 듯도 하니 (이 달이) 임이  
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그러면) 임께서 너(매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본사1>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푸른 잎이 우거져 그늘이 깔  
렸는데,

(임이 없는 탓에) 비단 휘장 안은 쓸쓸하고, 수놓은 장  
막은 텅 비어 있다.

연꽃무늬를 수놓은 비단 휘장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  
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가득이나 근심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도) 길던가?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치수를) 재어서 임의 옷을 지어 내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을 올려 그  
안에 (임의 옷을)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 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감히) 찾아갈까?

가거든 (임께서 백옥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본 듯 반기  
실까?

<본사2>

하룻밤 (사이) 서리 내릴 무렵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높은 누각에 홀로 올라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으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 &lt;본사3&gt;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하도 할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앓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鸞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쉰꼬

## &lt;본사4&gt;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저근덧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의 맺혀 있어 골수(骨髓)의 깨쳐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그 달과 별이)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맑은 달빛을 집어내어 임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구나.

(임께서 그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까지도(온 나라 방방곡곡) 대낮 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 &lt;본사3&gt;

온 세상이 추위에 얼어붙어 생기가 막히고 흰 눈으로 온통 뒤덮여 있으니,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도 자취를 감추었다.

소상강 남쪽처럼 따뜻한 이곳(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임금이 계신 북쪽의 궁궐이야 (그 추위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따뜻한 봄별을 (부채로) 부쳐내듯 일으켜서 임 계신 곳에 쏘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햇별을 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은 채,

해 저물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 서니 (이런저런) 생각거리가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저서 긴 밤을 곳곳이 앓아,

푸른 등불 걸어둔 옆에 자개 장식의 공후(하프와 비슷한 동양의 옛 현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라도 입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부부가 덮는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기나긴) 밤은 언제나 쉰 것인가?

## &lt;본사4&gt;

하루도 열두 때이고, 한 달도 서른 날인데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지만,

(시름이) 마음속에 맺혀 있어 뺏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중국 전국시대의 명의)과 같은 명의가 많이 오더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여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좃으려 하노라

<결사>

라도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아아, 내 병이야 (이 모든 것은)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리라.

(호랑나비가 되면)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마다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그 향을) 임의 옷에 옮기리라.

임께서 (그 호랑나비가) 나인 줄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결사>

현대소설 [27~30번 지문] [박완서, '해산 바가지']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면값 같은 분을 호부 포항에서 빼뜨리느냐 말게요. 별개 아닌 사람들이 다 혼자 혼자 호부라고 신문에 나오 상금도 타던데.”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58), 사용 설명서(p256~259)

[작품 '한 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개입해-”

[작품 전체 줄거리]

'나'는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나'의 남편은 외아들인데, 첫딸을 낳고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해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맞이한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힘들게 시어머니를 모시던 '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괴로워한다. [EBS 출제 부분]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던 중에 초가지붕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결심한다. 이후 '나'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더 모시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한다.

[Tip] '때때로 혐오감이 고조될 땐 살의를 방불케 해...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부양하는 일은 가족관계 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이지만 작품에서 그려진 한국 사회에선 이는 은폐해야 하는 감정이다. 작중 인물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극심한 내면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꾸미는 '위선적 행동'을 한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박완서의 소설에는 아거나 노인, 환자 등의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 인물은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는 가족 해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해산 바가지」의 주인공은 시어머니를 아끼는 마음 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불균형으로 괴로워하다, 시어머니가 베풀었던 송고한 '돌봄'을 기억해 내고 내적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돌봄'의 순환은 해체될 수 있었던 가족을 다시 연결시킨다.

<보기>  
point

- 타인의 시선에 의한 돌봄 →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 진정한 돌봄의 의미를 깨달음.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보면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도 얇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한사코 마셨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기가 며칠은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옷 자체를 안 갈아입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복을 갈아입히려 하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를 만큼 망령은 날로 심해졌다. 갈아입기를 싫어하고부터는 씻지도 않았다. 목욕을 시키기는 갈아입히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순순히 몸을 맡겨도 애정이 없는 분의 속살을 만진다는 건 극기(克己)를 요하는 일인데 길길이 뛰며 마다는 걸 씻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분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 주는 건 오로지 아들의 눈요강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구원의 가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지옥을 살면서도 아이들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겐 여전히 무던하고 참을성 있는 효부로 보이길 바랐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사이의 심한 격차로 미구\*에 자신이 분열되고 말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나는 나의 이중성에 악착같이 집착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의 분열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느냐 말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중략 줄거리]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다 신경 쇠약에 걸리게 되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보낼 요양원을 찾아본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원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 [tip] 요약적 제시, 압축적 서술

[14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데'

위 예는 '요약적 제시'의 근거가 되었던 부분이다. 요약적 진술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것 곧 서술자가 임의로 사건의 경과를 압축시켜 진술하는 것이다. "대화와 같은 인물들의 행위를 하나 하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로지 서술자의 시선으로만, 즉 일방적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주의할 점은 이 서술 과정에서 서술자의 생각이 함께 진술되어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약적 제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18학년도 6월 평가원]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러저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위 역시 '요약적 제시'의 근거가 되었던 부분이다. 똑같은 내용임에도 상당한 정답률 차이를 보였다. 내용은 서술자의 아내의 행적에 관한 주관적 추론 내용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없이 '아내가 고무신짝을 던진 일'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서술자가 일방적으로 압축 전달하고 있으므로 요약적 제시라 할 수 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 박완서, 「해산 바가지」-

\* 미구: 얼마 오래지 아니함.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젠'는 아니다. 그러나 시현에게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손주들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b>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b> 하면서, 남아 선호 사상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또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갈등하던 '나'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에서 <b>우리 사회가 겪는 노인 소외에 대한 문제의식</b> 도 제기하고 있다.
주제	<b>남아 선호 사상 비판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b>
'수능특강' <보기>	
「해산 바가지」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반부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찾는 방문객들의 대화와 '나'의 친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b>남아 선호 사상과 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b> 을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b>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굴레</b> 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찾아가던 중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 <b>생명의 고귀함</b> 에 대해 되새긴다.	
<보기> point	(1) 남아 선호 사상과 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굴레 (2) 생명의 고귀함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②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에서 '나'가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나는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을 때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경건하게 아이들의 명과 복을 빌어 준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라고 말하며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되새기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임종 때의 모습에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만은 꼭!」(in 사용설명서)	
<b>[포인트1]</b> '해산 바가지'의 서사적 기능	
• 이 작품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으며,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기 전과 후로 서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	사건 전환의 매개체
⇒	
정신이 망가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알아보러 가던 '나'는 도중에 어느 초가지붕에 자란 풍만하고 잘생긴 박을 보고 과거에 시어머니가 손주를 맞이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림.	해산 바가지로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나'가 낳은 아이들을 맞이하며 돌봐 주었던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신을 떠올리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마음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함.

**[포인트2]** 작품의 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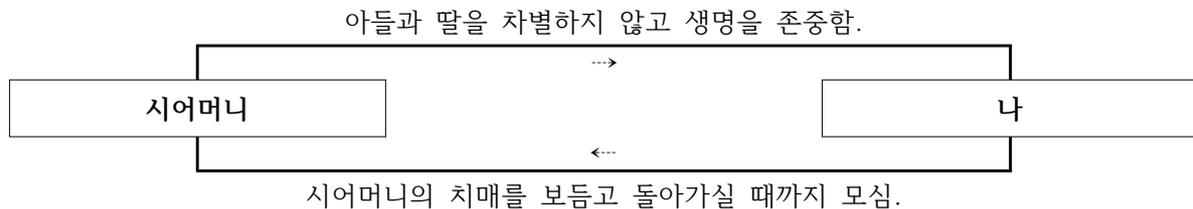
- 이 작품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한 사회적 세태에 대해 비판하는 전반부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했던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신을 떠올리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 '나'의 친구는 딸을 출산한 며느리를 구박하며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tip]** 사회에 의해 성차별주의가 내재된 친구에게 평등이란 말은 생소함, 생경함 그 이상이다. 갈등의 원인은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 곧 남성과 관련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는 '나'가 친구에게 '나'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 주는 방식의 액자 구성을 통해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포인트3]** 후반부의 순환 구조

- 이 작품의 후반부는 시어머니에게서 생명 존중의 마음을 깨달은 '나'가 생명 존중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실천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루며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박완서 그리고 여성>, 평가원 - '2005학년도, 박완서 「엄마의 말뚝」"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복에 두고 온 논밭 저당잡고 돈도 귀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단 데 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단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예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 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쫓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 가날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울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든가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울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 [A]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㉞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b>문제 1</b>	<b>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b>
<b>문제 선지</b>	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b>정답 해설</b>	④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땅을 향해 그 한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되는 시간(과거 사건)과 서술하는 시간(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일치되지 않는, 이른바 회고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b>오답 풀이</b>	① 인물 사이의 특별한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어머니와 분단 현실 사이의 갈등이 주로 드러나 있다.
<b>문제 2</b>	<b>㉞ ~ ㉟ 중에서 ㉟의 심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b>
<b>문제 선지</b>	① ㉞                                      ② ㉟                                      ③ ㉞                                      ④ ㉟                                      ⑤ ㉞
<b>정답 해설</b>	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알맞은 온기와 쥐는 힘이 나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서럽게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어머니의 ㉞ ‘비통한 의지’와 매우 밀접하다. 즉, 분단의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한 가족의 비애인 동시에 민족적인 비극이 숨어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b>오답 풀이</b>	② ㉞ 일종의 목계는 비록 살아 생전에 이북의 고향으로 돌아가진 못 하지만, 죽은 후에라도 가야겠다는, 말없는 약속을 가리킨다.
<b>문제 3</b>	<b>㉞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b>
<b>문제 선지</b>	① 체험의 동질성              ② 성격의 동질성              ③ 신념의 동질성 ④ 심리의 동질성              ⑤ 생사관(生死觀)의 동질성
<b>정답 해설</b>	① 어머니는 자신이 죽게 된다면, 어머니 자신이 오빠한테 해 준 것처럼, 자신도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해서 가루를 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라도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나’에게 부탁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도 오빠와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의 동질성’이 가장 적절하다.
<b>오답 풀이</b>	③ 어머니와 ‘나’ 사이에 신념의 동일하다고 추리할 수 있는 단서는 찾기 어렵다. 단지 오빠를

	화장한 것처럼 자신도 죽은 뒤에 화장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b>문제 4</b>	<b>㉠과 ㉡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
<b>문제 선지</b>	① '나'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 ②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③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온 일을 후회하고 있다. ④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⑤ '어머니'와 '나'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b>정답 해설</b>	④ ㉠은 화장한 오빠의 시신의 가루를 바닷가에서 뿌리는 과거의 장면이다. ㉡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점(어머니의 죽음)에 '나'가 취할 행동이다. 이로 보건대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b>오답 풀이</b>	① '불러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b>문제 5</b>	<b>위 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둠 토론을 준비하려고 한다. [A]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lt;보기&gt;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b>
<b>&lt;보기&gt;</b>	<p>                 &lt;1&gt; 의미 해석                  단서 [A]                  ↓                  [A]의 의미 해석1 .....                  의미 해석n                  ‘의미 해석1 ..... 의미 해석n’                  은 모둠 토론에서 타당성 여부를 서로 다투게 될 다양한 의미 해석들임.             </p> <p>                 &lt;2&gt; 의미 해석의 확장                  확장된 해석1 .....                  확장된 해석n                  ↑ ↓                  해석의 근거                  ‘확장된 해석1 ..... 확장된 해석n’은 모둠 토론에서 타당성 여부를 서로 다투게 될 다양한 확장된 해석들임.             </p> <p>                 &lt;3&gt; 평가                  ↓                  가치 판단             </p> <p>                 &lt;4&gt; 생각의 정리             </p>
<b>문제 선지</b>	①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 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 한 역사학자는 분단을 우리 민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어. 위 글은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는 민족의 한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이야. ②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

	<p>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소시민의 현실 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주장된 바 있어. 위 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야.</p> <p>③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 위 글은 거대한 적인 분단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대목이야.</p> <p>④ [A]를 보면 '어머니'는 죽음으로써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분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 위 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인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야.</p> <p>⑤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역사와 개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위 글은 그 사실을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있어야 할 올바른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암시한 대목인 셈이지.</p>
<p><b>정답 해설</b></p>	<p>③ 이 문제는 선택지의 내용 자체가 지닌 타당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lt;보기&gt;에서 제시한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아가며 감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t;1단계&gt;에서는 단서[A]를 두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lt;2단계&gt;에서는 한 가지 해석을 택한 다음에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해석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lt;3단계&gt;에서는, 확장된 해석에 대해 가치 판단을 포함하여 평가를 내린 다음, &lt;4단계&gt;에서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이로 보면, ③이 경로를 지키지 않은 감상이므로 정답이 된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은 의미 해석의 확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단서와 의미 해석)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또한 세 번째 문장도 확장된 해석의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p>
<p><b>오답 풀이</b></p>	<p>①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어머니'는 [A]의 단서와 그 의미를 드러낸 부분이다. →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은 근거(민족 전체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실)를 바탕으로 한 의미 해석의 확장 부분이다. → '분단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 한 역사학자의 말'은 가치 판단을 내포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아직도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한을 형상화한 것'은 생각의 정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①은 &lt;보기&gt;의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아 감상한 경우이다. ②, ④, 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p>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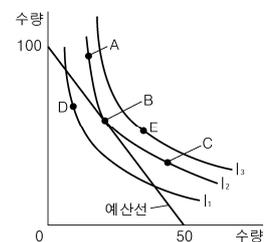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경제[39~42번 지문][소비자 선택 이론을 통한 합리적 소비의 이해]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 EBS 수득 사회·문화 4 지문을 함께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비 행위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합리적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소비 행위를 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I_1, I_2, I_3$ )이다. 현실의 소비자는 무수히 많은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구매하지만, <그림>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품이 X와 Y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예산선은 주어진 예산을 전부 사용하여 살 수 있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직선이다. 예산선이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X의 구매량을 늘릴수록 Y의 구매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주어진 예산을 전부 한 상품만 소비하는 데 사용하면 X는 50개 살 수 있고 Y는 100개를 살 수 있으므로,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은 2이다.



&lt;그림&gt;

무차별곡선은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비자마다 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무차별곡선도 우하향하는 것은 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면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줄여야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란 만족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X를 1개 더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의 수량으로, 무차별곡선 위의 특정 지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A 부근의 곡선보다 C 부근의 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A에서의 한계 대체율보다 C에서의 한계 대체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X를 1개 얻기 위해 기꺼이 줄이려는 Y의 수량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림>의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어떤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B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묶음이 최적 지점이다. B의 묶음은 무차별곡선  $I_2$  위에 있는 A나 C의 묶음과 동일한 만족감을 주지만, 이 묶음들은 E의 묶음과 마찬가지로 예산선 바깥에 있어 <그림>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D의 묶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①이것은 B의 묶음을 선택할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예산선은 최적 지점인 B에 접하는 접선이다. 이는 결국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과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지점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가 상품의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도 있다. X와 Y의 가격은 그대로인 채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림>의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무차별곡선  $I_3$ 의 한 지점과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는 X와 Y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 이렇게 소득 증가가 소비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상품을 정상재라고 한다.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도 감소한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열등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고 자동차가 열등재일 수 있다. 소득이 오르면 중고차보다는 신차 구입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때 어떤 상품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비자마다 취향이나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도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밖에도 소비자 선택 이론은 다양한 경제 현상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줌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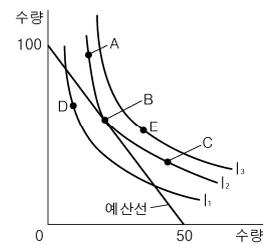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소비자 선택 이론(C)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비 행위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합리적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소비 행위를 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I_1, I_2, I_3$ )이다. 현실의 소비자는 무수히 많은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구매하지만, <그림>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품 X와 Y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소비자 선택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소비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제시된 선들을 살펴보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예산선'입니다.
- ② 앞 문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과 연결되는 선은 '예산선'이 될 것이니, '만족도'와 연결되는 선은 무차별 곡선 ' $I_1, I_2, I_3$ '가 아닐까...? 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③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저 4개의 선을 가지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로 갑니다. 만족도가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만족도라는 수치가 최대가 되는 특정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선의 교점', '두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선(C)은 주어진 예산을 전부 사용하여 살 수 있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직선이다. 예산선이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X의 구매량을 늘릴수록 Y의 구매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C)을 나타낸다. 주어진 예산을 전부 한 상품만 소비하는 데 사용하면 X는 50개 살 수 있고 Y는 100개를 살 수 있으므로,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은 2이다.



<그림>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먼저 예산선은 예산을 전부 사용하여 살 수 있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묶음'이라는 말이 어색하다면 '조합'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가진 돈이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Y의 가격은 10원, X의 가격은 20원입니다. Y로만 100원 어치를 구매하려고 하면 Y 100개를 살 수 있겠죠. 이 조합은 (Y:100, X:0)입니다. 반대로 X로만 1000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하면 X는 50개를 살 수 있겠지요. 이 조합은 (Y:0, X:50)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나요? 만약 Y를 50개 구입한다고 하면, X는 몇 개 구입할 수 있을까요? Y 50개의 가격은 500원입니다. 그럼 예산(1000원)에서 남은 돈은 500원이 됩니다. 500원으로는 X를 25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조합은 (Y:50, X:25)가 됩니다. <그림>의 '예산선'에서 딱 중간에 찍히는 지점이 되겠군요.
- ② 이왕 사례를 들었으니, 그대로 이어서 '상대 가격' 개념까지 이해해 봅시다. 상대 가격은 'Y에 대한 X의 상대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잘하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를 금방 구할 수 있겠지요. 2입니다.

그럼 'Y에 대한 X의 상대적인 가격'은 무엇을 뜻할까요. 위의 사례에서 Y의 가격은 10원, X의 가격은 20원이었습니다. X의 가격이 Y의 가격보다 '2배 높다'는 뜻입니다. 이 '2배'가 '상대적인 가격'이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면 '상대 가격'은 'X의 가격을 Y의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곡선(C)은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비자마다 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무차별곡선도 우하향하는 것은 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면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줄여야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C)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란 만족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X를 1개 더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의 수량으로, 무차별곡선 위의 특정 지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A 부근의 곡선보다 C 부근의 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A에서의 한계 대체율보다 C에서의 한계 대체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X를 1개 얻기 위해 기꺼이 줄이려는 Y의 수량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역시 무차별곡선  $I_1, I_2, I_3$ 는 소비자 만족감과 연관된 곡선들이었습니다. 만족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이니, 그 기준은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 ② 무차별곡선은 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연결해놓은 선입니다. 만족감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릴 때 다른 상품의 구매량은 줄여야 합니다. 만약 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릴 때 다른 상품의 구매량도 유지된다면, 만족감은 더 커지겠지요. 구매하는 상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으니까요.
- ③ 그리고 제시된 개념이 '한계 대체율'입니다. 무차별곡선이 볼록한 이유가 바로 한계 대체율 때문인데, 한계 대체율의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X의 한계 대체율 : 만족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X를 1개 더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의 수량  
= '무차별곡선 위의 특정 지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

그런데 이 X의 한계 대체율은 X의 수량이 커질수록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나나는 100kg이 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인이 와서 고기를 하나 팔 테니 바나나를 몇 개나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줄 수 있다고 할까요? 있는 바나나 100kg 다 줄 테니 고기 하나만 팔라고 할 겁니다. 이때 '고기'의 한계 대체율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럼 반면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무인도에 토끼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고기를 어느 정도 수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고기가 어느 정도 생긴 여러분에게 저번에 그 고기 상인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기를 하나 팔 테니 바나나를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어 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도 바나나 100kg을 다 준다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고기를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 파는 고기의 한계 대체율은 전만큼 크지 않을 겁니다.

- ④ 이를 지문에서는

'X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X를 1개 얻기 위해 기꺼이 줄이려는 Y의 수량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연결이 안 된다면 X에 '고기'를, Y에 '바나나'를 대입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림>의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어떤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B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묶음이 최적 지점이다. B의 묶음은 무차별곡선  $I_2$  위에 있는 A나 C의 묶음과 동일한 만족감을 주지만, 이 묶음들은 E의 묶음과 마찬가지로 예산선 바깥에 있어 <그림>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D의 묶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B의 묶음을 선택할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예산선은 최적 지점인 B에 접하는 접선이다. 이는 결국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과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지점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지문의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말을 '가장 만족감이 높을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에서 '합리적인 소비'는 자신의 '만족감을 높이는 소비'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가장 만족감이 높은, 가장 합리적인 소비 지점은 B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접점', 즉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I_2$ '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점', '접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B가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지점이라면, 무차별곡선  $I_2$ 위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점들이니(왜인지 모르겠다면 앞문단 무차별곡선 개념 참고할 것),  $I_2$ 위의 모든 점들은 가장 합리적인 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A와 C 같은 점들은 '예산선'을 벗어난 점들이지요. 이는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진 돈 다 털어봐야 Y 100개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A점 같은 경우는 Y를 100개 가까이 사면서 X도 대략 20개쯤은 사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예산 안에서 불가능한 구매 조합이지요.
- ③ D의 묶음은 우리 예산선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만족감이 B에 비해 적습니다. 이 또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적은가?'에 대한 답은 41번 문제 해설에 적어 놓았으니, 오답률 베스트 5의 41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④ 어쨌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 조합이 됩니다. ('교점' 아니고 '접점'입니다. 만약 '교점'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차별곡선  $I_1$ 과 예산선 사이의 교점 2개도 합리적인 소비 조합이 되어 버립니다.)
- ⑤ 앞 문단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앞에서 '한계 대체율'에 대해 말하면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라고 하였습니다. B에서 접하는 접선은 '예산선'입니다. B는 둘이 접하는 지점이니깐요. 그럼 결국 '예산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상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연결된 개념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지점(= 가장 만족감이 높은 지점)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 = 예산선 기울기 절댓값 =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

이러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가 상품의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도 있다. X와 Y의 가격은 그대로인 채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림>의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무차별곡선  $I_3$ 의 한 지점과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는 X와 Y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 이렇게 소득 증가가 소비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상품을 정상재(C)라고 한다.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도 감소한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열등재(C)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고 자동차가 열등재일 수 있다. 소득이 오르면 중고차보다는 신차 구입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때 어떤 상품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비자마다 취향이나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도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소비자 선택 이론은 다양한 경제 현상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줌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수 있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마지막 문단은 길이에 비해 심플하다. '정상재와' '열등재'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 1) '정상재' : 소득↑ → 소비량↑ = <그림>의 X, Y  
= 소득↑ → 그래프 '예산선'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
- 2) '열등재' : 소득↑ → 소비량↓ = 중고차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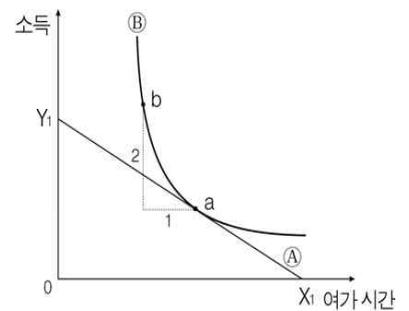
[1주차 자기 주도 학습 1] 한계대체율(2015학년도 3월 교육청 B형)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 #독해력 / #경제는 '개념'과 '관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_1Y_1$ 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_1Y_1$ 에서  $X_1$ 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_1$ 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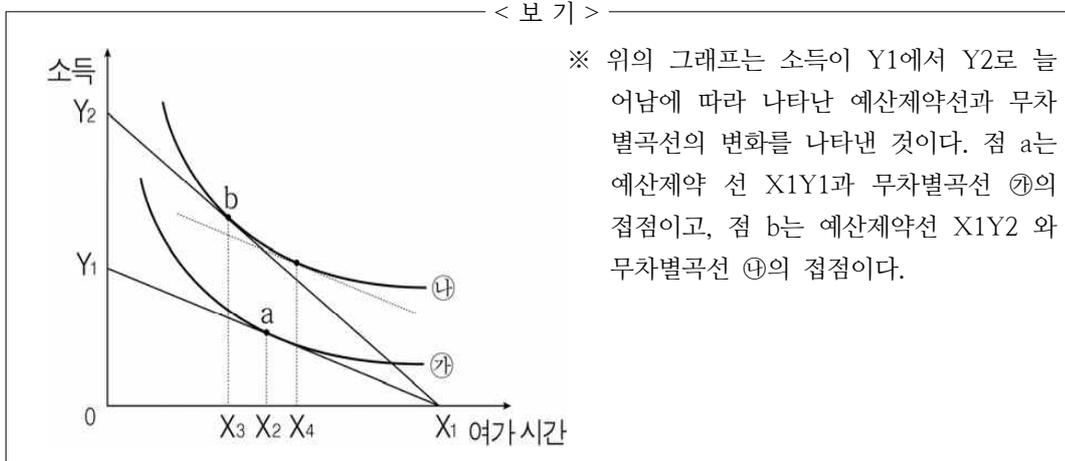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계효용 :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과 시간당 임금 상승 시의 노동 공급 결정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 a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 ②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 ③ 예산제약선 X1Y1과 X1Y2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 ④ X4에서 X2를 뺀 값은 대체효과를, X4에서 X3을 뺀 값은 소득 효과를 보여 준다.
- ⑤ 소득의 최댓값이 Y1에서 Y2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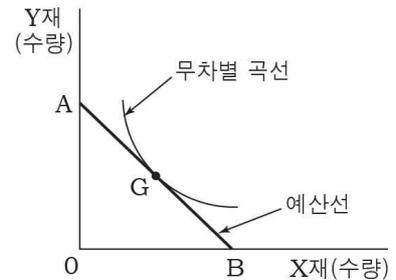
[1주차 자기 주도 학습 2] 재정학(2014학년도 4월 교육청 A/B 공통)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 #독해력 / #경제는 ‘개념’과 ‘관계’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 보조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그림>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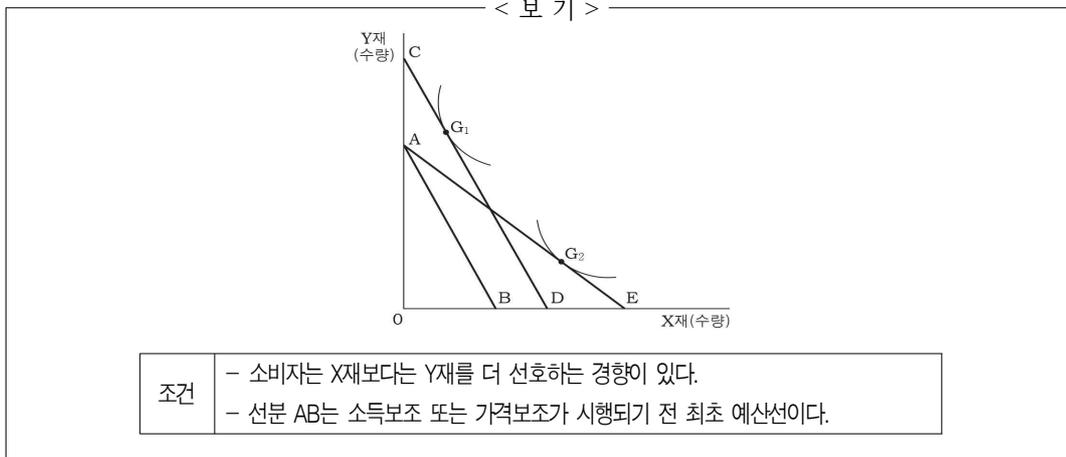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재 :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3.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5.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①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자기 주도 학습 정답 및 해설]

## 1. ②

(나)에서는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는 예산제약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약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2. ④

(라)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는 소득이 Y1에서 Y2로 높아짐에 따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무차별곡선도 이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차별곡선의 이동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는데, 무차별곡선 ㉗와 예산제약선 X1Y1의 접점에서와 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는 점(X2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이 무차별곡선 ㉘ 상에서 X4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X4에서 X2를 뺀 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도 동일한 소득이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즉 X4에서 X2를 뺀 값은 소득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이 그래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으므로, X4에서 X3를 뺀 값만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양상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X4에서 X3를 뺀 값은 대체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점 a에서 무차별곡선 ㉗의 접선은 예산제약선 X1Y1과 같다. 무차별곡선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을 나타내고,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 a에서는 무차별곡선 ㉗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예산제약선 X1Y1의 기울기이므로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㉗보다 ㉘가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점 a보다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⑤ 소득의 최대값이 Y1에서 Y2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관련 있는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 3. ②

이 글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중심으로 소득보조와 가격보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의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은 제시되지 않았다.

## 4. ③

CD는 소득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고, AE는 가격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다. 3문단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소득만 증가하는 소득보조의 경우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의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의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의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5. ②

<보기>의 신문 기사는 특정 물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설명하고 있다. 4문단의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를 통해 신문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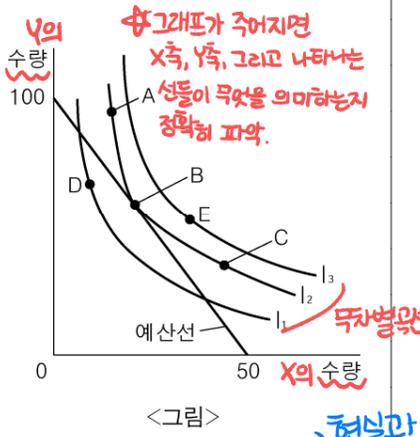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비 행위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합리적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소비 행위를 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I_1, I_2, I_3$ )이다. (현실의 소비자는 무수히 많은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구매하지만, <그림>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품이 X와 Y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예산선은 주어진 예산을 전부 사용하여 살 수 있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직선이다. 예산선이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X의 구매량을 늘릴수록 Y의 구매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주어진 예산을 전부 한 상품만 소비하는 데 사용하면 X는 50개 살 수 있고 Y는 100개를 살 수 있으므로,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은 2이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두 상품의 묶음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비자마다 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무차별곡선도 우하향하는 것은 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면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줄여야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란 만족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X를 1개 더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의 수량으로, 무차별곡선 위의 특정 지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A 부근의 곡선보다 C 부근의 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A에서의 한계 대체율보다 C에서의 한계 대체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X를 1개 얻기 위해 기꺼이 줄이려는 Y의 수량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림>의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어떤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B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묶음이 최적 지점이다. B의 묶음은 무차별곡선  $I_2$  위에 있는 A나 C의 묶음과 동일한 만족감을 주지만, 이 묶음들은 E의 묶음과 마찬가지로 예산선 바깥에 있어 <그림>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D의 묶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① 이것은 B의 묶음을 선택할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예산선은 최적 지점인 B에 접하는 접선이다. 이는 결국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과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지점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가 상품의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도 있다. X와 Y의 가



39-2  
39-4 VS  
39-1  
예산선 위쪽  
Y 2개 X 1개  
무차별곡선 위쪽  
예산선의 기울기  
A, C, E는 소비자의 선택권 밖  
A, C, E는 소비자의 선택권 밖

격은 그대로인 채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림>의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무차별곡선  $I_3$ 의 한 지점과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는 X와 Y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 이렇게 소득 증가가 소비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상품을 정상재라고 한다.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도 감소한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열등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고 자동차가 열등재일 수 있다. 소득이 오르면 중고차보다는 신차 구입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때 어떤 상품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비자마다 취향이나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도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소비자 선택 이론은 다양한 경제 현상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줌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수 있었다.

정상재는 소득 & 소비량이 비례관계  
VS  
열등재는 소득 & 소비량이 비례관계

⇒ 예산선 & 무차별곡선의 공통/차이점, 정상재와 열등재의 차이점에 주목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다. V
- ②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V
- ③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이 2라는 것은 한 개의 X가 두 개의 Y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V
- ④ 어떤 사람에게서 열등재인 상품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상재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취향이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V
- 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어떤 상품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상품을 추가로 소유할 때 얻는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X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Y에 대한 X의 한계 대체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인데, 선지의 "어떤 상품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상품을 추가로 소유할 때 얻는 만족감"은 한계 대체율의 정의이므로 반대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X.

40.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① 소비자의 소득은 그대로인 채 X의 가격만 오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변할 것이다. V → X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 가격은 당연히 증가한다.
- ② 소비자의 소득은 그대로인 채 Y의 가격만 오르면 Y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은 더 낮아질 것이다. V → ①번과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곤 하는 가능성. 만약 Y 50개에 X 50개면  $\frac{Y}{X} = \frac{50}{50} = 1$ . <2 (변수)>
- ③ 소비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X와 Y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내리면 예산선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X → 당연히 틀렸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X와 Y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X와 Y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④ X와 Y의 가격은 그대로인 채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예산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무차별곡선  $I_1$ 의 한 지점과 접할 수 있다. V → 소득이 감소 = 예산이 감소이므로 왼쪽으로 예산선이 이동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I_1$ 의 한 지점과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⑤ X와 Y의 가격은 그대로인 채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예산선이 무차별곡선  $I_3$ 의 한 지점과 접하면, 그 지점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V

↳ ④번과 유사하게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도 증가하므로 예산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지문에서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왜 B가 D보다 합리적인 선택일까?

41. ㉠이 타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우선, D와 B가 비교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자.

- ①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의 크기에 비례한다. X
- ②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에 비례한다. V
- ③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에 반비례한다. X
- ④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에 비례한다. X
- ⑤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에 반비례한다. X

↳ ①, ④, ⑤: 세 선택지 모두 "예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B와 D가 있는 그래프는 동일하고, 따라서 예산선 또한 동일할 수 밖에 없으니 "예산선"은 두 지점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없다.

42.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상품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격 효과라고 한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상품뿐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증가하므로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위와 반대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 대신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다른 상품 대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도 대체 효과이다.

(단, 어떤 상품의 가격 변동에 의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발생할 때 그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에는 가격 변동이 없고, 정상재와 열등재의 가격 변동은 모두 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또한 언제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 ① 어떤 사람에게 정상재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겠군. V
- ② 어떤 사람에게 정상재인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늘리겠군. V
- ③ 어떤 사람에게 열등재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겠군. V
- ④ 어떤 사람에게 열등재인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그 사람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늘리겠군. X
- ⑤ 일반적으로 정상재의 가격 변동은 열등재의 가격 변동보다 소비자의 소비량을 더 크게 변화시키겠군. V

↳ 정상재에서의 소득효과: i) 가격 증가 → 소비량 감소, ii) 가격 감소 → 소비량 증가  
 대체효과: i) 가격 증가 → 소비량 감소, ii) 가격 감소 → 소비량 증가  
 열등재에서의 소득효과: i) 가격 증가 → 소비량 증가, ii) 가격 감소 → 소비량 감소  
 대체효과: i) 가격 증가 → 소비량 감소, ii) 가격 감소 → 소비량 증가

↳ 따라서, 정상재에서는 소득 &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비량이 열등재에 비해 더 크게 변화한다.

정상재 → 소득이 ↑하면 소비도 ↑, 그 반대로 비례.

열등재 → 소득이 ↓하면 소비는 ↑, 그 반대로 반비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는 대명 신종황제 육 년 춘삼월이라, 우리 조정의 관상감(觀象監)\*이 계사\*하되, "장성(長星)\*이 동남을 가로선 지 수월이로소이다." 하니 상이 근심하시니 백관(百官)들이 아뢰길, "중국이 무사하고 나라가 태평하오니 무슨 근심이 있으리 이까."

하거늘, 상이 반신반의하시더니, 기축년에 이르러는 태백성이 자주 뵈고 백홍(白虹)\*이 자주 해를 꿰며, 경인년에 이르러는 경상도 달성 태음강이 스스로 마르고, 동해의 고기가 서해에서 잡히고, 연평 바다 고기가 교동에서 잡히고, 평양 성중에 범이 들어와 사람을 해치고, 대동강이 자주 범람하고, 도성 내에 검은 기운이 충천하기를 칠 일을 하고, 황해도 물이 핏빛이 되어 삼 일을 끓으니 어족이 죽어 물 위에 뜨고 남해 물이 자주 넘치니 세상 사람이 다 놀라 의논이 분분한지라. 대간(臺諫) 조현이 국중(國中)에 자주 재변(災變)이 있음을 보고 상소하여 가로되, "신이 비록 지식이 없사오나 요사이 천문을 보니 태백이 동으로 쫓아 북으로 지고 재변이 연하여 일어나고 세도인심(世道人心)이 지극히 흉흉하여 부모 형제 서로 인륜대의(人倫大義)를 모르오니 조만간에 반드시 변이 있을 것이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살피사 불우지변을 방지하소서."

하였거늘, 상이 그 상소를 보시고 의혹하여 결행치 못하시더니 형조 판서 유흥이 상전에 나아가 아뢰길, "이 같은 태평한 때에 조현이 요망한 말을 내어 민심을 소요(騷擾)\*케 하니 그 죄 중하온지라, 원컨대 성상은 빨리 조현을 찬출(黜黜)\*하사 민심을 진정케 하소서." 상이 옳이 여겨 즉시 윤허하시고 조현을 함경도 감산에 정배하시다.

(중략)

각설, 총융사 김성일이 갑병 천여 기를 거느리고 경성으로 향하여 오다가 부평 땅에 이르러 왜적 위탁을 만나니 위탁의 신장이 팔 척이요 범의 허리에 잔나비 팔이며 철갑을 입고 머리에 금투구를 쓰고 장창을 두르며 말을 달려 달아드니 장졸들이 한번 보고 경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거늘 김성일이 대호 왈, "너희들이 내 영을 좇지 아니코 도망하니 이는 도적보다 더한지라, 어찌 나라를 보존하리요."

비장 이송이 부끄러워 즉시 활을 잡아 도적을 쏘아 백여 인을 죽이고 성일이 또한 유엽전\*으로 백여 인을 죽이니 적이 대패하여 달아나니라.

재설, 수군대장 이순신이 정읍 현감으로 있다가 수영에 도입\*한 후에, 왜변이 있을 줄 알고 배 사십여 척을 지으며 위에는 거북이 형상을 만들고 첩판을 배 위에 입히고 구멍을 무수히 뚫어 벌의 집 모양과 같이 하고 살과 철환을 통하여 도적을 쏘게 하였더라. 이름을 거북선이라 하고 날마다 장졸을 모아 수전을 연습하더니 이때에 마다시와 심안둔 두 장수가 용병 팔십만을 거느려 전라 신도(身島)를 건너 우수영을 범하니 우수사 이억기, 원균 등이 황겁하여 어쩔 줄 몰라 다만 전선(戰船)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